



시민공론화위원회_1차 브리핑

✓ **보도일시**

2020. 5. 29.(금)

<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이 양 재 (☎ 010-5029-5455)
	간 사	이 정 현 (☎ 010-3689-4342)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 문 기 (☎ 063-281-5033)
총 매 수	3매 (첨부자료 1매 포함)	
사 진	유 ☐ 무 ☒	영 상 유 ☐ 무 ☒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

-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지, 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공론화가 대장정에 돌입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약칭-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의 시동을 걸었다.
- 시민공론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과 사무처리, 시와 위원회의 운영 조율 등을 담당할 간사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를 호선했다.
- 이어서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 △사전준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마치고, 회의의 모든 회의의 과정과 쟁점, 결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확인 하였으며, △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론화 관련 공간 운영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회의 직후 정례 언론 브리핑 등 큰 틀에서 운영 방향을 정 했다.

- 공론화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6월 12일(금) 오전 9시부터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한다. 이어 공론화 방식인 ‘시나리오 워크숍*’ 과업지시서(안)를 검토하고 참여자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시나리오워크숍은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방식으로 의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내 미래를 예측하는 공론화 기법임.

- 이양재 위원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투명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론화인 만큼 도시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 고 강조했다.
- 이정현 간사는 “도시에 대한 권리 행사 주체가 시민임을 확인시켜 주는 공론화 되어야 한다.” 면서 “모든 과정과 주요 쟁점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위원회를 연 뒤 서면 혹은 브리핑을 통해 결정사항을 언론에 알리겠다.” 고 밝혔다. 또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이 토지소유자인 (주)자광이 제시한 개발계획 검토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붙임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현황

○ 인 원 : 11명

○ 기 간 : 2020. 5. ~ 시민공론화 종료 시까지

○ 위촉 위원 명부

연번	분 야 별	소 속	성 명	비 고
1	갈등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이희진	사전준비위원회 위원장
2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내교수	이승모	
3	도시계획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양재	사전준비위원회 위원
4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용준	
5	사회경제	우석대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	유대근	
6	"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엄영숙	
7	회계(감정평가)	현대 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최종문	
8	언론인	전북연합뉴스 부분부장	홍인철	사전준비위원회 위원
9	시의원	전주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10	시민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	사전준비위원회 위원
11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사전준비위원회 위원